

## 메이지 150년전: 메이지의 일본화와 공예

1868년에 메이지시대로 접어들자 정부 주도하에 식산흥업과 수출진흥정책이 추진되었고, 메이지 6년(1873)의 빈 만국박람회에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참가함으로써 일본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국가전략으로서 공예도안 지도에 힘을 쏟게 되었고, 전국의 공예가에 주는 도안의 제작, 혹은 제출된 도안의 수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작품군이 그 후의 만국박람회 등에서 계속 상을 받으면서 해외로의 미술품 수출은 더 큰 기세를 얻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도쿄로 옮겨진 관계로 경제기반을 잃고 쇠퇴해 나가던 교토에서는 ‘긴코잔 소베에’와 ‘다이잔 요헤에’ 등이 수출용 도자기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산업 진흥을 목적의 하나로 삼아 교토부 회화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술의 진보가 도안의 개량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그대로 공예제작이나 산업계에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수많은 일본화가가 공예도안 제작에 종사하면서 시대에 맞는 도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이 전람회에서는 교토부 회화학교나 공예도안에 종사한 일본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메이지시대의 공예품과 “온지도록(温知図録)” 등의 공예도안을 한자리에 전시함으로써 근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탄생한 메이지의 미술품을 소개합니다.